

보도자료



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

발로 뛰는 윤명희

함께 뛰는 새 이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m567h@na.go.kr

[2015. 9. 15(화)]

윤명희 국회의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알리바바 운영 티몰(T-mall) 입점브랜드 중 97%가 중소기업? 실제로는 대기업 브랜드만 입점**
- 2. 김치 무역적자 5년간 1,152억**
 - 김치 수입액은 1억 달러 이상인 반면 수출액은 20%이상 감소
 - 수출선도조직, 휘모리 사업도 수출 부진 연례화,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국 개척 등 대책 마련 시급
- 3. aT 수출의 60%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분리는 가공식품**
 - 수출용 가공식품의 90% 이상은 수입산 원료, 국산 원료 사용비율은 3년째 제자리, 신선농식품 수출은 오히려 20% 감소
- 4. 농업정책자금 부정적인 집행 및 부당 사용으로 인해 농업인 피해 가중**
 - 농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부당사용으로 인한 적발 금액은 최근 5년간 25%(63억원), 적발건수는 98%(1,049건)로 증가함
 - 2014년 기준으로 부적정 집행 및 부당 사용금액은 316억원, 적발 건수 2,122건
- 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제고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 필요**
 - 자기부담금 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알리바바 운영 티몰(T-mall) 입점브랜드 중 97%가 중소기업? 실제로는 대기업 브랜드만 입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aT가 알리바바 운영 티몰(T-mall) 입점브랜드 중 97%가 중소기업 브랜드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 알리바바 마윈회장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상품관을 공식 오픈하고 aT에서는 중소기업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에 손쉽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길이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함.
-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티몰에 입점하는데 사전 허가만 6개월이 걸리는 등 입점에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며, 티몰 입점 수수료가 우리 돈으로 약 3천만원이고 연간 이용료 역시 500만원~10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티몰에 입점한 한국 농수산물식품 입점브랜드는 총 146개를 살펴본 결과 국민이 체감하는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멀어 대기업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적용기준 : 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대기업 분류되는 기업 4개 : CJ, 롯데, 농협, 진로
 - *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142개 : 이마트, 해태, 오리온, 크라운, 농심, 해표, 청정원, 오뚜기, 동서식품, 풀무원, 동원, 삼양, 샘표, 남양유업, 백설, 빙그레, 서울우유, 정관장, LG생활건강, 일양약품, 베지밀, 웅진, 광동, 국순당, 사조대림, 종가집, 삼다수 등
- 입점품목 또한 조제분유, 유자차, 막걸리, 고추장, 음료, 조미김 등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국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입점과 더불어 우유나 김치 같은 품목들도 알리바바에 입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함.

김치 무역적자 5년간 1,152억

- 김치 수입액은 1억 달러 이상인 반면 수출액은 20%이상 감소
- 수출선도조직, 휘모리 사업도 수출 부진 연례화,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국 개척 등 대책 마련 시급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김치 무역적자는 천억을 훌쩍 넘는 점을 지적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국 개척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입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무역적자는 1,152억인 실정임.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천불)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상
수출	98,360	104,577	106,608	89,277	84,033	42,901
수입	102,019	120,874	110,842	117,431	104,396	67,389
무역수지	△3,659	△16,297	△4,234	△28,154	△20,363	△24,487
무역적자	97,19만 4천 달러 (약 1,152억 7천만 원)					

○ aT에서 매년 3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수출지원*을 하고 있지만 김치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12년 대비 2014년 감소율이 21.2%이며 김치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이 67%에 달할 정도로 일본 쏠림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 최근 5년간 수출물류비 지원은 약150억 원

○ 또한 수출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선도 조직의 수출 비중은 2013년 22%에서 2014년 16%로 급감하였으며, 휘모리 사업도 최근 4년째 수출 비중이 제자리걸음 중에 있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수출 다변화 대책을 통해 신흥국의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함.

aT 수출의 60%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분리는 가공식품

- 수출용 가공식품의 90% 이상은 수입산 원료, 국산 원료 사용비율은 3년째 제자리, 신선농식품 수출은 오히려 20% 감소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aT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 수출이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비율 확대를 촉구함.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을 보면, 신선농식품은 연평균 증가율이 7%인 것에 비해 가공식품의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 가공식품 수출 증가율이 신선농식품의 2배에 달하는 실정임.

< 연도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 >

(단위 : 억불, %)

구분	'05	'09	'10	'11	'12	'13	'14	연평균 증가율
총계	34.1	48.1	58.8	76.9	80.0	78.7	82.5	10.3
신선	6.1	7.4	8.7	10.1	10.8	11.8	11.2	7.0
(비중)	17.9	15.4	14.8	13.1	13.5	15.0	13.6	
가공	16.1	25.6	32.1	43.7	45.6	45.4	50.6	13.6
(비중)	47.2	53.2	54.6	56.8	57.0	57.7	61.3	
수산물	11.9	15.1	18.0	23.1	23.6	21.5	20.7	6.3
(비중)	34.9	31.4	30.6	30.0	29.5	27.3	25.1	

- 심지어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감소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감소한 실정임.
- 하지만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원료 사용 비율은 2012년 31.6%, 2013년 29.7%, 2014년 31.2%로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90% 이상을 수입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커피, 설탕, 라면 등은 수입업체 배만 불리는 것이다.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신선농식품, 가공식품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원재료 사용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함.

농업정책자금 부적정한 집행 및 부당 사용으로 선량한 농업인 매도 당함

- 농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부당사용으로 인한 적발 금액은
최근 5년간 25%(63억원), 적발건수는 98%(1,049건)로 증가함
- 2014년 기준으로 부적정 집행 및 부당 사용금액은 316억원, 적발 건수 2,122건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농업정책금융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부당사용으로 인한 적발 금액은 최근 5년간 25%(63억원), 적발 건수는 98%(1,049건)로 증가하였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 함.
- 실제, 검사 대상 기관이 2010년 96곳에서 2014년 302곳으로 대폭 확대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집행 된 정책자금이 316억원인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전체 검사 대상기관(1,826개) 중 2014년도에 검사를 한 기관은 302개에 불과한데, 그나마 실효성이 높은 현장 검사는 152곳에 불과함. 이에, 실제 정책자금의 부당사용 사례는 적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농업정책자금 부실한 사후관리와 일부 농업인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선량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임. 우선, 수백억원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어 그만큼의 정책자금이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지 못했고 국민들에게는 농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농업에 산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임.
- ▶ 이에, 윤명희의원은 “끓아 있던 상처를 도려내는 각오로 그동안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농업계가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불과 12명 밖에 되지 않는 농금원의 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검사 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검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부정을 막을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 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20.4%에 불과.. 농가경영안정망 빨간불

- 자기부담금 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함

- 윤명희의원은 농업정책금융원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 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4%에 불과하다며 농업경영안정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힘.
- 실제, 농기계구입과 함께 농작물재해가 농가부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재해가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에서 대형 재해 발생시 농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 됨.
-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농촌 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률(40%, 30%, 20%, 15%)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자기부담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고 농가들의 통상 영농활동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인데, 20%의 자기부담 상품에 가입할 경우 19%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큰 상황 임.
- 이에, 윤명희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기부담금(현행 10%, 15%는 각각 3년 연속, 2년 연속 무사고자에 한해 가입 가능)을 10%, 15%로 완화하는 상품이나 자기부담금이 없는 특약 상품을 개발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 말함.
- 다만, 자기부담금을 완화 할 경우 농가들이 납입하는 보험금은 높아져 농가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인상액 일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임.